

1631년에는 경상도 지방에서 여자 종으로 환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윤회이론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 환자가 7세가 때 고구려 귀족으로 살았다면 그는 다른 어느 업보다도 고구려라는 지역에서 귀족으로서의 업을 더 많이 지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설사 그가 아프리카와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고구려와 인연이 훨씬 더 깊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는 없다. 업(業)의 세력의 강약에 따라 다음 생의 존재의 형태 출신 환경 국토 등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고구려 귀족이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전사로 될 수 있는 업을 지을 수 있었겠는가. 스코틀랜드의 양치기와 스페인의 농부로 되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있어야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윤회는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제멋대로 또는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시 본인이 어떻게 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업을 지어 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업은 절대로 그냥 소멸되지 않는다. 이 생(生)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생(生)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업은 한 존재의 현재의 운명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존재의 모든 것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사람으로 태어 날 수 있는 업을 지었으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짐승이 될 수 있는 업을 지었으면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 한 존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모습, 성격, 환경, 태어난 국토, 수명의 길고 짧음, 육체적인 조건 등은 그 존재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이다. 역시 현재 짓고 있는 업은 그 존재의 미래를 결정하는 재료가 된다.

업은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도 결정한다. 단체나 사회의 운명은 그 단체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짓는 업에 의해 결정된다. 한 존재는 그 자

계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과보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과보의 성질은 업의 성질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같은 밭에 고추 씨앗과 가지 씨앗을 심은 뒤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고추와 가지를 키우더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다. 고추 씨앗의 결과는 고추로 나타나게 되고, 가지 씨앗의 결과는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고추와 가지의 모양과 맛은 그것을 키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씨앗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업이 일단 결정되고 나면 과보는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절대로 그냥 소멸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그 업을 지은 존재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고야 만다.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업은 개인의 의지작용(意志作用)에 의해 짓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자신이 지은 업을 다른 존재에게 이점시킬

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업이 일단 결정된 뒤에는 외부의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업을 지은 존재의 노력에 따라 그 결과를 다소 변화시킬 수는 있다. 업을 지은 뒤에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된 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업의 과보를 나타내지 않게 할 수 있거나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소금물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한 움큼의 소금을 한잔의 물 속에 넣으면 그 물은 짜서 마실 수 없지만 그 소금을 큰 대야의 물에 넣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 한 잔 속의 물에 넣은 소금의 양과 큰 대야의 물에 넣은 소금의 양은 동일하지만 물의 양에 따라 소금물의 농도가 다르게 되므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물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이미 결정된 업도 업을 지은 존재의 노력에 의해 그 결과를 어느 정도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나쁜 업을 지었어도 그 뒤에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이미 지은 나쁜 업에 대한 과보는 표현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업의 세력이 악업의 세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업 이론은 기계론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성이론이 나온 후 물리학자들은 시공간(時空間)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시간과 공간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기에 시간과 공간을 합하여 시공간이라고 하는 데 이 시공간은 사람의 오관으로 보고 듣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實體)라고 할 수 없으나 시공간의 존재를 전제하여 물리현상을 논할 수 있다. 물리현상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을 포함하여 우주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시공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하고 좋아하는 정신작용도 다 두뇌라는 공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적어도 오관으로 보고 느끼는 모든 현상은 다 시공간내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시공간은 시공간내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현상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비유하면 뉴턴의 고전역학에서는 별

이것이 아니라 시간의 길이 공간의 길이도 사람의 운동상태, 물체의 운동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지상에 있는 사람과 빠르게 달리는 로켓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

기로 하자.

로켓에 있는 사람과 지상에 있는 사람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시공간에 대한 기준계가 다르다. 로켓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 시간과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 시간의 길이가 우선 다르게 나타난다. 로켓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시간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로켓의 속력이 충분히 빠르면, 로켓에 탄 사람이 일주일 여행하고 지구에 돌아와 보니 지구에는 백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일도 가능하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 가끔 나오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럴 일이 일어난다. 수명이 백만분의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4

김상구

반아심경과 물리학 21

윤회는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전생에 사람이었던 존재도 다음 생에서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의 존재로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섯 종류의 세계를 통해, 수많은 존재로 모습을 바꾸어 다시 태어난다. 천상의 세계(天界), 사람의 세계(人間界), 아수라의 세계(阿修羅界), 동물의 세계(畜生界), 아귀의 세계(餓鬼界), 지옥중생의 세계(地獄界)가 윤회의 무대이다.



◇ 전생을 소재로 한 저술·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시각적 뒷받침이 없어 자칫 불교의 전생관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사진은 영화 '윤회' 무 '침대'의 광고 화면.

윤회의 무대 육도세계

윤회는 한없는 세월이 걸쳐서 되풀이된다. 일 겁(劫)만 해도 거의 무한대의 시간과 맞먹는 길인대 역점을 거치면서 되풀이된다. 윤회는 업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 업은 윤회를 하게 하는 동력(動力)으로서, 그것이 완전하게 고갈되면 윤회는 끝난다. 이것이 열반이다.

업력 來生결정...과보 받아야 업 소멸 개인 업은 共業에도 영향 미쳐 업 완전고갈되면 윤회끝나고 '열반'

업(業, karma)이란 중생들이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즉 육체로 짓는 행위인 신업(身業)과 언어로 짓는 구업(口業), 마음으로 짓는 의업(意業)이다. 업 이론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因果)의 법칙(法則)"에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라는 "논리적(論理的)인 법칙(法則)"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과성(因果性)은 자연법칙에서와 같은 것이지만, 논리성(論理性), 즉 선한 행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악한 행위에는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다.

중생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행위(業) 그 자체는 순간적으로 끝난다. 그러나 행위는 그것을 행한 존재 속에 반드시 어떤 흔적이거나 '세력(勢力)'을 남기게 된다. 마치 향(香)을 태울 때 향이 다 타서 사라진 뒤에도 향기가 옷에 배어들어 남게 되는 것과 같다. 행위, 즉 업이 남긴 이 세력을 업력(業力)이라 한다. 그것은 잠재적인 에너지로서 업을 지은 그 존재 속에 머물러 있다. 기회가 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업력은 존재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동력(動力)으로 작용하고, 죽은 뒤에 그들의 미래를 만드는 에너지로 된다.

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개인 업, 즉 불공업(不共業)을 짓는 것과 동시에, 역시 그 존재가 몰입하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업(共業)도 짓게 된다.

중생들이 짓는 행위를 업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모든 행위가 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업다운 업은 과보를 초래할 수 있는 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의도적인 행위여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행해진 행위는 과보(果報)를 초래할 힘을 가지지 못한다. 둘째 윤리적인 행위여야 한다. 선하지도 않거나 악하지도 않은 행위는 과보를 초래할 능력이 없다.

업과 과보는 식물이 비유해서 설명되기도 한다. 하나의 씨앗이 지면 그것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열려 익는다. 그 열매의 맛과 성질은 전적으로 그 씨앗에 따른다. 마찬가지로 업을 지으면 그것은 성숙하

같은 종자도 결과 달라

과보(果報)가 나타나는 시기는 업의 성질과 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것은 곡식이 종자에 따라 싹이 나오는 시기가 다른 것과 같다. 또한 동일한 종자라도 온도와 습도 등 그 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싹이 일찍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한다.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도 이와 같아서 일정하지 않다.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는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 이 생에서 지어서 이 생에서 그 과보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음 생에 나타나기도 한다. 역시 여러 생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과보는 언제인지는 틀림없이 나타나고야 만다. 저절로 소멸되는 일은 결코 없다.

업을 지으면 틀림없이 그 과보를 받게 되지만 그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대로 동일한 업에 대해서도 그 업을 지은 대상과 업이 결정된 이후의 상황에 따라 과보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과보를 받는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선업을 지은 자는 천상이나 인간계, 즉 선도(善道)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은 자는 주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의 세계, 즉 악도(惡道)에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선도의 어느곳에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것도 거기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서 소비해야 할 업을 모두 소비하고 나면 다른곳에 다른 존재로 태어나야할 나머지 업때문에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난다. 업을 소비하는 한편으로 역시 새로운 업을 짓게된다. 그래서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고 다시 죽으면서 윤회는 한없이 계속 되는 것이다. 윤회의 길이는 거의 무한대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있다. 윤회의 끝은 열반이고, 그것이 불교의 목표인 것이다.

업이 일단 이루어지면 그 성질에 따라 틀림없이 과보가 있게 되지만, 그러나 과보는 산술적(算術的)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동일한 두 개의 업을 지었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다. 음식을 짐승에게 주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결과가 더 크고, 범부에게 보다는 수행자에게 주는 것이 더욱 좋은 과보를 초래하게 한다. 짐승을 죽여도 그 죄는 무겁지만 사람이나 성인(聖人)을 죽이면 그 죄는 더욱 무겁다. 이와 같은 원리는 같은 밭의 밭에 같은 양의 종자를 심는다고 해도 그 밭의 상태에 따라 수확의 양이 다

지상법석 한희 습니다

시공간도 시작과 끝 있는 물리적인 실체 물질·색·무색 사람이 지어낸 분별지

대시공간을 가정하였는데 이 절대시공간이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보인 것이 상대성이론이다.

물질은 우리가 직접 오관으로 보고 느낄 수 있으나 시공간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없으므로 물질은 실체라 부르고 시공간은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시공간에도 모양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며 물질에 여러가지 물리적인 특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공간에도 여러가지 물리적인 성질이 있다.

경에 이르기를 "...시공공중 무색..."이라고 하였는데 색(色)이라고 느끼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보이는 시공간의 성질을 살펴보면 우리가 색이라 부르고 무색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편 의상 그렇게 나누어 생각할 뿐 색이 따로 있고 무색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어느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무색과 관련된 이 시공간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자. 동시성(同時性)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기준계(基準線)가 있어 기준계마다 다 시간의 기준이 달라 내가 보기엔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도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이지만 동시성만 달라지

일초 밖에 안되는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면 2~3초동안 붕괴되지 않고 살아있는 일은 실험실안에서나 우주공간내에서 항상 일어난다고 있다.

시간의 길이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길이도 달라진다. 로켓에 있는 사람이 로켓의 길이를 30m라고 측정하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빨리 날아가는 로켓의 길이를 측정한다면 30m가 되지 않는다. 로켓의 속력에 따라 20m도 될 수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시공공중 무색..."이라는 말에서 색(色)은 물질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물질계라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일상적 경험에서 보고 판단하는 물질계와는 크게 다르다. 위에서 잠깐 설명한 바와같이 시간이나 공간의 길이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차츰 설명해나갔지만 물질이 실체 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시성(同時性)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기준계(基準線)가 있어 기준계마다 다 시간의 기준이 달라 내가 보기엔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도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이지만 동시성만 달라지

(이화여대 교수·물리학자)

•소쩍새마을: (0371)762-987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2리 1320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회원자가 되실 분은 승가원으로 전화 주세요.

한번씩은 부모가 되어 주세요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강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 -

"엄마!"
"아빠!"
가슴 저리는 그리움으로
그렇게 불러보고 싶는데
가슴 따뜻한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나?

내가 차라리 사라진다면
내가 차라리 잊혀진다면
엄마 아빠 고통을 덜어줄텐데.....

소쩍새마을 식구들은 대부분 버림받았거나 오갈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려해도 사랑할 가족이 없고, 사랑
받으려 해도 쓰다듬어 줄 부모가 없습니다. 일년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이들을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세
요. 이들의 부모가 되어 주세요.

서틀버스 운행 안내

-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조계사에서 소쩍새마을까지 버스를 매일 운행합니다. (월요일 제외)
- 오전 7시30분: 조계사 입구 출발
- 오전 8시10분: 동서울 터미널 옆 우성아파트 101동 후문 앞 마을버스 정류소 경유
- 오후 3시 정각: 소쩍새마을 출발 (토·일요일은 2시)
- 오후 5시30분: 안양동 중앙승가대학 도착

따뜻한 부모 품을 기다리는 사람들 - **소쩍새마을**



소쩍새마을: (0371)762-987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2리 1320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회원자가 되실 분은 승가원으로 전화 주세요.